

제국의 옛 틀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 틀로 - 복음으로 여는 나훔 -

나훔 1:1, 마태복음 28:18-20

정윤돈 목사님

“우주 만물을 말씀 한 마디로 창조하시고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놓쳐서 마귀에게 속아 이 땅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는 은혜 안에서 불러 주시사 복음 안에 있는 나라에 불러주시고 세계복음화의 비전도 붙잡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성취될 메시지를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나훔서를 중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선지자 나훔의 고향은 엘고스라고 나훔서 1장 1절에 나와 있다. 어떤 학자는 엘고스가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갈릴리 나사렛과 가까운 지역이라고 보고 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가버나움이란 나훔의 고향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이란 지명의 뜻이 ‘나훔의 마을’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성경 속 지명을 보면 하나님의 절대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짐을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다. 별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인도해서 동방박사가 오지 않았는가. 다윗은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있었던 곳은 나사렛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나기 위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왜 그런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신기하게도 성경 말씀은 다 연결된다.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연결되는 것이다. 오늘 나훔의 지명과 이름도 마찬가지로이다. 나훔이라는 이름은 ‘위로자’라는 의미도 있다. 하나님의 세밀한 말씀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구원의 계획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웃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세계 237나라, 땅 끝까지 복음 증거 할 복음의 만남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참사랑교회에 부르시고,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구 역장을 만나게 하시고, 이 전도자와 다락방하게 하시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한 번만 생각해도 여러분은 엄청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강단메시지의 성취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나훔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주전 663년에서 주전 622년(니느웨가 멸망한 때)으로 보고 있고, 나훔서를 기록한 것은 주전 630년으로 보고 있다. 니느웨는 나훔이 예언한 지 18년 후인 주전 612년에 멸망하게 된다. 나훔서는 앗수르의 멸망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이다. 앗수르는 최초의 대제국이였다. 그러므로 나훔서는 경고를 받은 앗수르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앗수르의 침략

과 위협을 받고 있었던 남유다 왕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위로의 말씀이고, 희망을 주는 언약의 메시지였던 것이다.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자’이다. 해방이 되려면 조건이 있다. 속국 삼았던 나라가 망해야 한다. 그 나라는 망하지만 우리에게는 해방이다. 사단의 나라가 망했을 때, 우리가 해방되는 줄 믿기를 바란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개인, 조건, 환경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에게는 참 기쁨이 있는 것이다.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훔서를 보면 복음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복속하는 하나님, 진노하는 하나님, 저주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 ‘이것이 성경인가.’ 생각할 수도 있다. 축구경기를 보면 상대편이 져야지 우리가 이긴다. 마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다.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참고 주께 맡기는 것이다. 우리는 오직 복음만 증거하면 된다. 오직 강단메시지를 붙잡는 것이다. 원수 같아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대적을 결단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 결국 여러분의 가문, 가정, 개인, 나라와 민족은 반드시 승리할 줄을 믿기를 바란다. 방법은 한 사람이라도 정확한 복음의 언약을 붙잡으면 된다. 나훔서를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침략하고 약탈하고 노예로 끌고 간 앗시리아는 결국에는 심판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증거 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이 땅의 사단의 나라는 망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서 마지막 날에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나훔서에 나온 것이다. 그때 나훔서는 완전히 해석되는 것이다.

1. 첫 번째로 앗시리아의 큰 성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나훔서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니느웨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제국주의의 옛 틀을 가지고 있었다.

(1) 니느웨성은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끊이지 않았던 성이었다. 나훔 3장 1절에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나온다. 어떤 글을 봤더니 앗수르가 포로로 잡은 왕의 눈을 뽑고 살가죽을 벗겼다고 한다. 포악한 행동을 보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은 즐거워했다.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했던 나라가 바로 앗시리아를 정복한 바벨론이다. 앗시리아는 약 500년 동안 주변의 나라들을 침략하고 고통을 주었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에게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직 믿음,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기를 바란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사람이 니느웨, 앗수르가 된다.

(2) 그런데 나훔서 2장 1절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앗수르 니느웨성을 파괴하러 올라올 것이라고 것을 예언하고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나훔 2장 1절에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예언하고 있다. 나훔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BC.612년에 니느웨성은 바벨론(메데와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하여 멸망하고 말았다. 인간의 욕심과 동기로 세운 제국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힘 있고 큰 나라로 만드신 이유는 작은 나라를 돌보고 섬기라고 세우신 것을 알아야 한다. 주변이 중국, 일본, 미국이 있는데 그 나라를 왜 강한 나라로 만드셨는가. 돕고 함께 가라고 만드신 것이다.

(3) 하나님께서 하신 멸망의 방법은 무엇인가. 자신들의 힘만 믿고 악행을 행하던 대제국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성은 결국 강물에 수몰되어 약 2,500년 동안 땅 속에 잠기고 말았다. 나훔서 1장 8절에 그 내용이 예언되어 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 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2. 두 번째로, 앗시리아와 니스웨성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요나와 니스웨이다. 니스웨성은 나훔 선지자가 활동하기 약 150년 전에 요나 선지자가 회개를 선포한 성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들의 후손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그들은 결국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30~40년 동안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에는 전쟁이 멈췄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우상숭배를 하게 된 것이다.

(2) 요나의 행적이다. 지금도 이라크의 모술(니스웨의 현재지명)이라는 지역에는 기념성전인 요나의 무덤과 요나의 동산이라는 지역이 남아 있다. 이로 볼 때 요나는 그 후 평생 동안 이방나라인 앗수르에서 복음을 증거 하다가 니스웨에서 사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니스웨의 멸망이다. 앗수르는 약 500여 년 동안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였다. 그러나 메테와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해서 주전 612년에 멸망하고 말았다.

(4) 성경과 앗수르이다. 이 앗수르는 BC.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로 유명하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앗수르 왕국으로 끌고 가 노예로 삼았고 앗수르 민족을 또 북쪽 이스라엘에 이주시켜서 북쪽 이스라엘의 혈통을 뒤섞어 놓았다. 이 지역을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에는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불렀다. 이 때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된 민족이라고 상대하지도 않았고 그 땅을 지나가지도 않았다. 이 사건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가서 한 여인에게 자신을 증거 하신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고 있다. 오래된 역사 속에서 상처받은 땅인 사마리아를 치유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앗수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함을 보여주신 것이다. 약 700년 전에 사마리아 지역을 혼혈로 만든 나라가 앗수르였던 것이다. 그 수도가 니스웨였던 것이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당시에 앗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왕은 남유다까지 침략하기 위하여 진군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000명의 군대를 죽게 하여 남유다 왕국을 보호해 주셨다. 이 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유적이 1850년에 한 둥근 토관의 발견으로 증명되게 되었다. 그 토관은 산헤립 왕의 8번의 원정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었다. 특히 블레셋 도성들에 대한 지적과 유다왕국을 침공한 일과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다. 토관의 역사기록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9절과 이사야 36장에서 37장에 있는 성경의 기록과 일치한다. 그런데 그 토관에는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는 기록만 나오고 아무런 성과 없이 다시 앗수르로 돌아온 이유에 대해서는 기록 되어있지 않았다. 실패하고 왔으니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5) 고고학적인 발굴과 성경의 역사성 사실성이다. 성경에 무려 152차례나 언급된 앗시리아 제국과 니스웨라는 성은 그저 전설로만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니스웨'라는 말은 신·구약 성경에 20군데, '앗시리아'라는 말은 132군데나 나왔다. 그런데 땅 속에 묻혀진 니스웨 성을 발굴함으로써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진 것이다.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인데 학교에서는 전혀 말하지 않는다. 말해줘도 영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과 아무 관계없이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배워야 한다. 1843년 프랑스 고고학자 '폴 에밀 보다'가 홍수로 인해 땅 속에 묻혀있던 앗수르의 수도 니스웨를 발견했다. 그리고 '헨리 오스틴 레이어드'라는 고고학자는 1845년에 폐허가 된 니스웨에서 12~13km에 달하는 벽으로 된 성 지역 전부를 발견했다. 남쪽의 언덕은 그 높이가 30m이며, 원주민들은 지금도 이곳을 '네비 유니스'(예언자 요나)라고 부

르고 있었다. 북쪽의 언덕은 그 높이가 27m이며, '쿠윤직'(니스웨의 성)이란 이름을 갖고 있었다. '레이어드'는 북쪽 언덕에서 좌우 양쪽에 날개 달린 사자가 지키는 고대의 성문과 설형문자로 산헤립이라 새겨진 성벽을 발굴했다. 이 고대 대제국인 니스웨성의 멸망은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것은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의 나라는 멸망하고, 결국은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비유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복음으로 모든 족속을 제자삼아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축원한다. 나훔서의 많은 부분은 이러한 비유적인 의미를 알고 읽을 때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즉 많은 성경학자들은 나훔서 기록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과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예수님의 제림을 예표하는 성경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나훔서 1장 4절이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6) 나훔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데다.' 나훔서 1장 6절이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라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오늘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훔서와 결국 멸망한 앗수르 제국을 생각하며 우리들의 미래전도 6가지를 적용해 보고자 한다.

1. 첫 번째 단어는 Leverage 이다. 우리는 강대국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란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세상과 험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축원한다.
2. 두 번째는 Vessel 이다. 앗수르는 주변의 약한 나라를 착취하는 수준의 그릇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의 영육 간에 약한 나라를 살리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겠다.
3. 다음은 Transmission 이다. 우리는 복음과 함께 경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저렇게 살면 정말 당할 건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때는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해줘야 한다. 새 것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앗수르 제국과 같이 살아간다면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4. Nobody 이다. 지금도 앗수르의 니스웨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증거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5. Platform 이다. 우리는 앗수르처럼 멸망의 platform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한 platform의 사명을 감당하여야 하겠다.
6. Outsourcing 이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제국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전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영적인 outsourcing이다. 끝으로 237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강대국들까지 치유하는 성도들과 램턴트들이 되기를 축원 드린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잘 읽지 않았던,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나훔서였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발견케 하신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요나처럼, 나훔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경교의 메시지, 치유와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